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국공립학교·관공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도시교통	차량공유서비스 여성 이용자가 여성 운전자를 선택하는 기능 도입
사회·복지	학교나 공공장소에 흡연 방지센서 설치		'203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 추진
환경·안전	극심한 지진 및 태풍 피해를 계기로 지역방재계획 개정 추진	도시계획·주택	공장 부지를 지역 공동체 소통의 중심으로 재탄생
			스마트 시티 계획 추진 시 주민 참여 강화 모델 제시
			옛 우체국을 '테크 도시' 중심으로 탈바꿈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국공립학교·관공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프랑스 보르도市 / 환경·안전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늘날 환경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 프랑스 보르도市는 시내 모든 국공립학교와 관공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8개 항목의 행동수칙을 공표

배경

- 오늘날 플라스틱은 사용 및 생산 시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 사용 시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에 해를 가하고, 사용 후 자연에 무단으로 버려질 때에는 분해되지 않는 특질로 인해 자연을 파괴하고 해양동물에게 해를 끼침
 - 생산 시에는 온실효과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대량 발생시킴
- 이에 보르도市는 플라스틱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난 2019년 11월 20일, 지금까지의 관련 정책과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8개 조항의 행동수칙을 제정하고 공표

주요 내용

- 市는 2년여 전부터 시내 전체 105개 국공립학교 구내식당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과 물컵 등의 사용을 금하고, 해당 플라스틱 용품을 모두 유리제품(강화유리 처리가 되어 파손 시 부상 위험이 적은 제품)으로 교체
 - 2019년 가을 학기부터는 플라스틱 물병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
 - 이와 동시에 배달 음식 포장용기도 자연 분해 가능한 재질로 교체
 - 영유아 탁아소는 2010년 이후 플라스틱 젓병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음
- 2019년 4월 시의회는 2020년부터 실행할 대책안을 채택
 -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 빨대, 물컵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
 - 이미 많은 공무원이 스테인리스나 나무 재질의 컵을 자발적으로 사용 중
 - 시민들과 요식업 종사자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으로 인한 자연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 2020년부터 자연 분해되는 재질의 기저귀를 시립 탁아소에서 시범 사용

○ 최근 8개 조항의 행동수칙을 공표

- 1항: 공공기관과 관공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구매를 금지
- 2항: 도심 공공공간에 플라스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 3항: 도움이 필요한 시민단체에 플라스틱 대체 제품 구매를 위한 경제적 지원 시행
- 4항: 상점에서 재활용 가능한 포장이나 포장재 없는 판매방법 등 대안 마련 권고.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도 영구 사용이 가능한 식기 사용 권장
- 5항: 각종 축제 등에서 재활용 가능한 반영구적인 식기 사용 권장
- 6항: 학교 및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공해의 심각성 교육
- 7항: 교육시설, 박물관, 스포츠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 8항: 자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http://www.bordeaux.fr/ebx/pgPresStand8.psm1?_nfpb=true&_pageLabel=pgPresStand8&classofcontent=presentationStandard&id=139690

<https://www.club-presse-bordeaux.fr/evenement/point-presse-bordeaux-objectif-zero-plastique/>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학교나 공공장소에 흡연 방지센서 설치

미국 시카고시 / 사회·복지

미국 시카고시는 청정도시 유지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와 흡연 가능 연령 상향 조정 등 다방면의 정책 변화를 시도. 특히 市가 운영하는 공원,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담배 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니코틴 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내에 흡연 방지센서를 설치하는 등 흡연 예방정책 적극 시행

배경

- 시카고시는 2019년 미국 내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는 정책을 다수 시행
 - 시는 건강, 안전, 청정 도시를 위해 도시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각종 차별행위 등을 적극 예방하거나 단속
 -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부터 체포 구금까지 가능
 - 개인 소유 식당, 카페 등에서도 이를 어길 경우 업주가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정책 덕분에 도시 전역이 뉴욕, LA 등 미국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공중위생, 안전도가 전반적으로 상승
 - 시는 전자담배 관련 법률도 제정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
 - 시는 지난 2014년 1월 15일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전자담배 규제를 통과시킴
 -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달콤한 향 또는 무향으로 흡연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자담배 흡연으로 사망 및 질병 발생이 이어지자 규제안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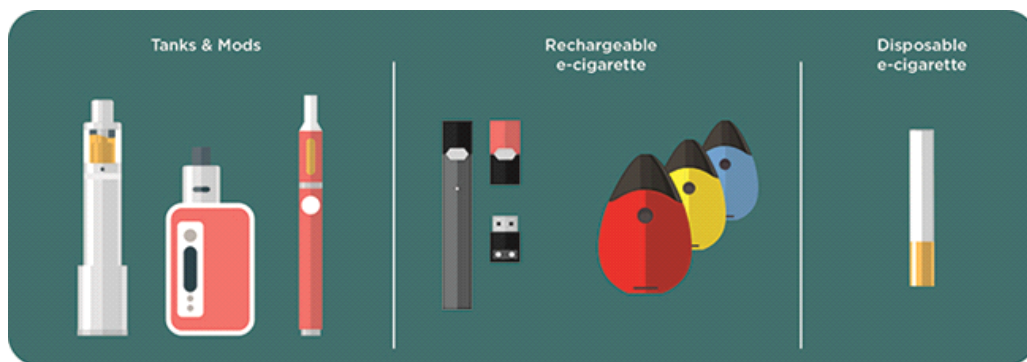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시카고시가 위치한 일리노이주는 2019년 7월 1일 담배, 전자담배, 쉐련 등 타바코(Tobacco) 제품의 구매 연령을 최소 21세로 상향 조정
 - 일리노이주는 담배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한 미국 내 8번째 주로서 도시 전반의 보건, 위생 수준, 안전도 등을 제고
 - 시는 해당 정책 변화를 통해 18세~20세 청소년의 흡연율이 36% 하락하는 효과를 거둠

- 미국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고등학생의 20%, 중학생의 5%가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등 1년 사이 78% 증가율을 보여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시에서 적극 개입
- 일리노이주의 흡연 가능 법정 연령 상향조정 정책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흡연하는 공원 내 화장실, 길거리, 학교 부근 지역의 담배꽂초 수가 감소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 감소 효과를 거둠
- 시카고 내 고등학교에 전자담배 이용 방지 센서를 설치하고, 온라인 금연 수업을 필수화
 - 주정부는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립학교, 도서관 등에 센서를 설치하고, '온라인 금연 수업'을 진행하며, 공공장소 흡연 규제 정책을 실시
 - 특히 10대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우다가 적발되면 성인처럼 벌금 부과 등 처벌이 아니라 온라인 금연 수업을 필수 받도록 함
 - 추후 주 전역의 공공장소에 센서를 도입해 위생적이고 건강한 공공공간을 유지할 예정
 - 공공장소 등에서의 흡연 규제 및 예방 정책은 해당 지역의 슬럼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어 도시안전도를 증진

향후 계획

- 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공공장소 규제 관련 법안을 시행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추구
 - 시는 2018년 담배 취급 업소 내 담배 유해성 관련 포스터 부착법 통과
 - 오프라인상의 담배 취급 업소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업체 8곳 등을 대상으로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업체를 단속
 - 시 외곽지역에 본사를 둔 월그린(Walgreen) 약국은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
 - 이 외에도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시카고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강력 규제가 계속되자 상품 철수, 판매 중단 등에 적극 동참
 - 시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청(FDA) 등 보건 당국의 관련 발표에 따라 발 빠르게 정책을 마련해 시행
 - 시민 안전과 위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추후에도 다양한 방식의 공공 시설, 공공공간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시는 공공 안전과 위생을 해치는 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예: 담배세)
 -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예방, 규제 정책 개발 및 시행에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금 낭비 없이 청정도시 유지 및 추구



[그림 1] 일리노이주가 공공장소에서 대대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전자담배 제품

<https://chicago.suntimes.com/politics/2019/11/18/20971346/flavored-vaping-ban-trump>

<https://abc7chicago.com/health/illinois-lawmakers-consider-flavored-vaping-ban/5562299/>

<http://cdc.gov>

극심한 지진 및 태풍 피해를 계기로 지역방재계획 개정 추진

일본 오사카시 / 환경·안전

일본 오사카시는 2018년 오사카부(府)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 21호를 교훈 삼아 피난 체제의 충실·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사카시 지역방재계획' 개정을 추진

배경

- 오사카시는 2018년 6월 오사카부(府)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9월에 발생한 태풍 21호로 막대한 피해를 보자 방재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결정
 - 재해대책기본법이나 수방법 등의 개정, 정부의 재해대책 관련 검토나 방재계획 수정 등을 토대로 '오사카시 지역방재계획'(大阪市地域防災計画) 개정을 추진
 - 개정 계획에서는 각 대책의 실시 주체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과 함께, PDCA (Plan-Do-Check-Act) 기법을 활용한 계획의 진행 관리를 효율화함

개정 내용

- 시는 ① '2018년에 경험한 재해를 교훈 삼아', ② '정부나 오사카부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③ '재해대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계획 개정을 추진
 - 예컨대, ① 오사카부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의 교훈을 반영해 홍보체제 강화나 블록 담 등의 붕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태풍 21호의 교훈을 반영해 대형 태풍을 상정한 조직 체제나 동원 체제의 재검토·강화 등을 추진
 - ② 2019년 3월 개정된 '피난 권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避難勧告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을 반영한 경계 단계의 피난 정보 발신, 2019년 3월 책정된 '난카이 해곡 지진의 다양한 발생 형태에 대비한 방재대응검토 가이드라인'(南海トラフ地震の多様な発生形態に備えた防災対応検討ガイドライン)을 반영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 본격 운용, 2019년 3월 수정된 '오사카부 지역방재계획'(大阪府地域防災計画)을 반영한 귀가 곤란자 대책이나 방일 외국인 대책 등을 추진
 - ③ 각 대책의 실시 주체를 면밀히 조사하고, 시청 각 부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조사
- 위의 관점에서 검토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해대책긴급본부를 폐지하고 정보 연락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태풍의 상륙이나 접근에 대비한 조직 체제를 명확히 하는 등 조직 체제 재검토

- 동원 구분을 재검토하고 각 부서의 분담사무를 토대로 동원 인원을 지정하는 등 동원 체제를 재검토
 - 예컨대, 이전에는 동원을 1호 동원, 2호 동원, 3호 동원, 4호 동원으로 구분하고 동원 인원을 1호 전원, 2호 직원의 1/2 이내, 3호 직원의 1/4 이내, 4호 초기 활동에 필요한 직원으로 정한 반면, 개정안에서는 1호 모든 직원, 2호 소속장 및 지정 인원, 3호 지정 인원, 4호 지정 인원으로 정함
- SNS 등을 활용한 재해 시 정보 전송 체제를 정비하는 등 홍보 체제 정비
 - 홍보는 기본적으로 그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속히 하는 것이 필요
- 블록담과 같은 비구조부재(非構造部材)에 관한 안전대책 마련을 비롯해 민간건축물의 안전대책을 강화. 참고로, 비구조부재는 건물을 구성하는 부재(골조를 구성하는 기둥이나 보, 지붕틀 구조 등의 막대 모양의 재료) 중 외주벽, 칸막이, 개구(부), 천장 등이나 그 마감재 등 구조 내력(構造耐力)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사업장에서의 일제 귀가나 임시 휴업 등을 요청하고, 일시적인 대피시설 확보를 촉진하는 등 귀가 곤란자 대책을 강화
- 다언어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 체제 강화, 버스터미널이나 역 주변 또는 관광안내소 등의 정보 전송 충실 등 방일 외국인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
- 관련 부서를 재해대책본부에 집결시키고 협력부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분담사무 재검토 및 각 대책의 실시 주체 명확화를 통해 역할을 분명히 함
- 긴키 지방 측량부를 지정지방행정기관으로 인정, 항만관리자가 시설 대행관리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난카이 해곡 지진에 관한 정보가 발표된 경우의 조직 체제나 정보 전달 체제 등에 관한 규정, 지금까지의 ‘대피 권고’ 등의 피난 정보 발신을 경계 단계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변경, 요배려자 이용시설¹⁾에 있어 피난 확보 계획 작성 및 훈련 의무화 등을 추진

<https://www.city.osaka.lg.jp/kikikanrishitsu/page/0000482967.html>

<https://www.city.osaka.lg.jp/kikikanrishitsu/cmsfiles/contents/0000482/482967/bousaikaikakugaiyou.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1) 요배려자 이용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의료시설, 그 밖에 방재상 배려를 요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함

차량공유서비스 여성 이용자가 여성 운전자를 선택하는 기능 도입

말레이시아 / 도시교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차량공유서비스, 오토바이공유서비스 이용 시 여성 승객이 여성 운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시범 운영할 계획

배경과 목적

- 여성 승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
 - 여성 관련 범죄를 막고 여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공유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 특히 남녀 공간 구별이 엄격한 이슬람사회에서 무슬림 여성 승객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짐
 - 이에 따라 2019년 12월 4일 안토니 로크 교통부 장관은 여성 승객이 차량공유서비스, 오토바이공유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여성 운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
 - 이를 위해 클랑밸리(말레이시아 수도권: 쿠알라룸푸르와 슬랑고르州 지칭)에서 시범 운행 실시를 결정. 시범 운행 이후 안전도,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

차량/오토바이공유서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 차량공유서비스
 - 말레이시아의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는 총 41개로, 2019년 12월 2일 기준 말레이시아의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는 91,978명으로 집계
 - 이 가운데 대표적인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는 말레이시아에서 2012년 시작한 그랩(Grab)
 - 차량공유서비스는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음
- 오토바이공유서비스
 - 말레이시아에서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오토바이공유서비스는 없으나, 2020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업체 고젝(Gojek)의 시범운영이 승인된 상태

- 고젝은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공유서비스로 시작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수도권인 클랑밸리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할 계획으로, 여성 운전자 선택 기능도 함께 도입할 계획
- 여성 전용 차량공유서비스
- 2016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출시된 라이딩 핑크(Riding Pink)는 말레이시아의 첫 여성 전용 차량공유서비스로 여성 운전자, 여성 승객만 이용 가능
 - 기존 차량공유서비스보다 운전자 숫자가 적어 예약제로 운영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여성의 취업기회를 늘리고 여성 승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음



[그림 1] 여성 전용 차량공유서비스 라이딩 핑크

<https://says.com/my/tech/women-will-have-the-option-to-choose-female-riders-for-motorcycle-e-hailing-service>

https://www.nst.com.my/news/nation/2019/12/544695/women-riders-women-passengers-m-cycle-e-hailing-service?_ga=2.103157320.970782280.1575842684-348201917.1575842684

‘203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 추진

캐나다 에드먼턴시 / 도시교통

차량 의존적 도시환경과 겨울철의 위험한 노면 상태로 교통사고가 잦은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2015년 9월 ‘비전 제로’(Vision Zero; 203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0명)라는 목표 아래 5개년 교통안전 전략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41% 감소, 보행자 부상자 수 21% 감소라는 성과를 거둠

배경

- 2015년 9월 에드먼턴시가 ‘비전 제로’(Vision Zero)를 채택한 캐나다 최초의 도시가 됨
 - 비전 제로(Vision Zero)는 203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0명을 목표로 함
- 시의회는 2016~2020년간 5개년 계획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교통안전 전략을 발표
 - 교통안전 전략은 5E, 즉 Engineering(공학), Education(교육), Engagement(참여), Enforcement(시행), Evaluation(평가)을 기본으로 함

주요 내용

- 비전 제로(Vision Zero)의 기본 원칙
 - 연계되지 않은 개별적인 안전도구를 지양하고, 시스템적인 접근방식으로 교통안전의 여러 도구를 연계시키고 상호 작동하도록 함
 - 사후 보완 및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유도
 - 사망 및 중상을 초래하는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도구를 개발
 - 설계, 유지 보수 및 도로를 이용하는 개개인이 안전도구 등을 공유하도록 함
- 교통안전 전략 5E의 주요 내용
 - 교육(Education)
 - 교육 프로그램은 안전의식을 높이고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통 충돌 데이터,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여 특정 유형의 충돌이 발생하는 시기와 이유를 파악하도록 함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59,600개 야광 반사판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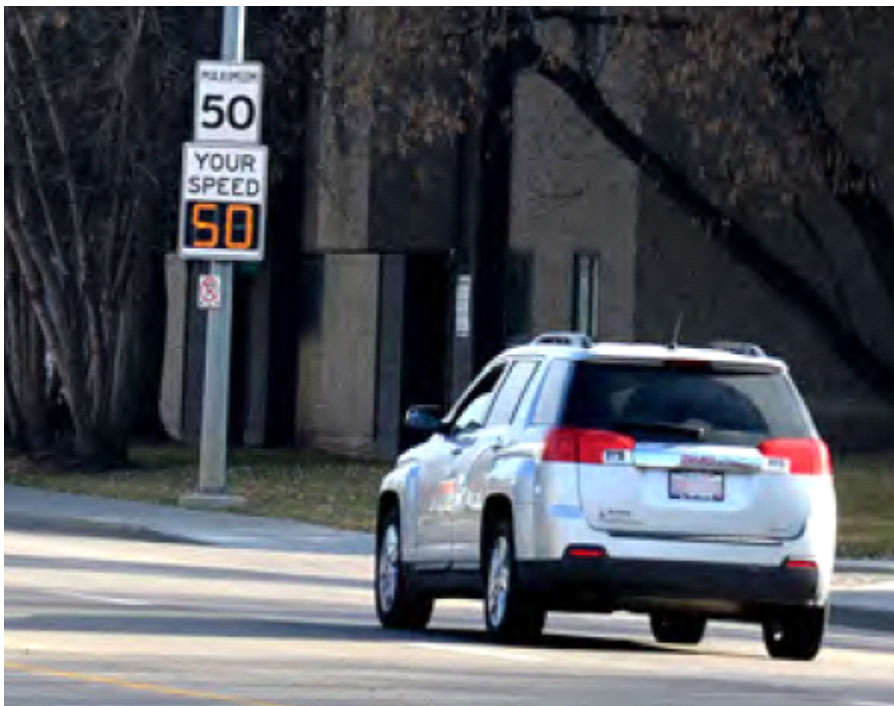
- 도로변 이동식 교통상황전광판을 연간 30,171시간 배치
- 시속 50km 이하 도로에 도로변 속도 표시계 65개 추가 설치
- 위도상의 특성으로 오전과 오후 햇빛에 의한 눈부심이 심한 동서 방향으로의 통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캠페인 실시
- 엔지니어링(Engineering)
 - 12개의 사거리 신호기에 재귀반사¹⁾(retroreflective) 필름 사용
 - 스쿨존에 점멸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 124개 횡단보도에 형광 도색
 - 8개소의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 6.6km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27개소의 양보 표지판을 정지 표지판으로 교체
 - 15개소의 비보호 좌회전을 신호 좌회전으로 전환
- 참여(Engagement)
 - 기업의 ‘비전 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기업 주도적인 교통안전 문화를 유도
 - 마을공동체 교통안전상을 시상하여 마을 교통안전에 리더십을 발휘한 주민을 격려
 - 연례 국제 도시교통안전학회를 개최하여 혁신 사례를 공유
 - ‘비전 제로 길거리팀’이라는 홍보팀을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실시
 - 공립·사립 학교, 앨버타 자동차협회, 앨버타 교통안전위원회, 에드먼턴 대중교통 등 4개 단체로 이루어진 협의체인 학교 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한 회의를 매월 개최
- 시행 및 단속(Enforcement)
 - 고정식,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감속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율을 현저하게 낮춤
 - 2018년 과속 적발건수는 378,619건으로, 2015년 498,227건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
- 평가(Evaluation)
 - 지역 내 대학인 앨버타 대학의 교통공학과와 협업하여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별 안전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우회전 및 좌회전 차선 개선을 통해 569건의 교통사고 감소를 보였으며, 신규 신호등 설치를 통해 39건, 재귀반사판을 통해 207건의 교통사고 감소를 보였음

1) 재귀반사(再歸反射)란 물체(광원, 光源)에서 나온 빛이 다른 물체에 도달할 경우 도달한 빛인 입사(入射) 광선을 그대로 광원으로 되돌려 반사하는 것을 말함. 이 현상은 빛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각도로 들어오더라도 광원의 방향으로 빛을 반사함.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도로의 표지판 등에 비쳤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되도록 하여 쉽게 표지판을 알아보도록 하고 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교통안전 문화 전파,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객관적 사고 데이터와 통합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
- 교통안전 문화 설문조사는 차량 속도, 부주의 운전, 위험 운전, 단속, 사고, 자전거 운전 습관, 보행자 행태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 현재 비전 제로 전략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는 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보는 인식도 대체로 부정적인 36%를 보이고 있음

교통사고 통계로 본 성과

- 지난 3년 동안 자동차 충돌사고 17%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41% 감소,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21% 감소, 보행자 부상자 21% 감소, 자전거 충돌사고 27% 감소, 자전거로 인한 부상자 29% 감소, 오토바이 충돌사고 31% 감소, 오토바이로 인한 부상자 26% 감소라는 성과를 거둠



[그림 1] 차량 속도를 보여줌으로써 감속을 유도하는 속도 표시기

출처: Vision Zero Edmonton Annual Report 2018



[그림 2] 보행자 보호와 과속차량 단속 등을 수행하고, 전방 도로상태 정보 등을 알려주는 이동식 전광판

출처: Vision Zero Edmonton Annual Report 2018



[그림 3] 벌금 부과 목적이 아닌 주의·주목을 통해 감속을 유도하는 신규 과속단속차량

출처: https://www.edmonton.ca/transportation/traffic_safety/automated-enforcement.aspx

Vision Zero Edmonton Annual Report 2018

https://www.edmonton.ca/transportation/traffic_safety/automated-enforcement.aspx

Vision Zero Edmonton Annual Report 2018, <https://www.edmonton.ca/transportation/traffic-safety.aspx>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공장 부지를 지역 공동체 소통의 중심으로 재탄생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도시계획·주택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오래된 공장 부지를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공동체 소통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형성된 공간인 만큼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해당 사례가 주목받게 되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잡고 있음

배경

- 바르셀로나시의 오래된 공장 부지에 대해 1976년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후 여러 차례의 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 부지의 일부에 대한 계획이 시행됨
 - 2011년 지역 주민들은 칸 바뜨요(Can batllo) 플랫폼을 구성
 - 칸 바뜨요 플랫폼 측은 공장 부지 재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와 공공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장
 - 또한, 바르셀로나 시의회를 상대로 2011년 6월까지 계획이 시행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공장 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발표
 - 이에 2011년 6월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공장 부지 중 건물 한 동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2014년부터 바르셀로나 시의회와 지역 주민 간에 칸 바뜨요 플랫폼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본 계획을 수립

주요 내용

- 프로젝트명: MPGM(칸 바뜨요-마고리아 지역 광역도시계획 수정안, 2017, Modificació del Pla General Metropolità en l'àmbit de Can Batlló - Magòria, 2017)
- 재개발 면적: 139,200㎡
- 공유지 소유기관: 바르셀로나 시의회, 카탈루냐 주정부
- 개발 주체: 바르셀로나 시의회 도시환경교통부

○ 재개발 용도

- 지역 내 연결성을 개선할 녹지 조성
- 지역 커뮤니케이션 시설
- 공공 행정 시설 및 공공 주택

○ 특징

-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되면서 재생사업에 차질이 빚자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
- 이로 인해 위기를 겪었으나, 시청과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성공적으로 재생사업을 진행

효과 및 시사점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형성된 공간인 만큼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해당 사례가 주목받게 되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잡고 있음
- 또한 바르셀로나 시의회와 협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획인 만큼 주요 행정 기관이 자리잡게 되면서, 타 지역과의 불균형 문제 또한 점차 개선될 전망
- 도시재생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위기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

https://ajuntament.barcelona.cat/sants-montjuic/es/noticia/en-marcha-la-redaccion-de-una-propuesta-de-urbanizacion-del-parque-de-can-batllo_783263

<https://media-edg.barcelona.cat/wp-content/uploads/2019/03/11135513/Pl%C3%A0nol-usos-Parc-Can-Batl%C3%B3-web.pdf>

<https://w10.bcn.es/APPS/secwebambit/detallAmbitAc.do?reqCode=inspect&referencia=B1524&>

<https://ajuntament.barcelona.cat/premsa/2017/02/06/barcelona-accelera-la-transformacio-de-can-batllo/?hilit=can+batll%C3%B3>

<https://www.canbatllo.org/>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스마트 시티 계획 추진 시 주민 참여 강화 모델 제시

캐나다 토론토시 / 도시계획·주택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마트 도시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캐나다 토론토시는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 유출, 정책 구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사용 규제를 위한 공공의 협의 및 논의의 플랫폼을 제시

배경

- 매년 60,000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는 토론토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과 주거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
 - 이에 토론토시는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
-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토론토 도시정책의 성공 사례
 - 교통환경 개선: 실시간 교통량 패턴 분석을 통한 교통 신호 조정 및 킹 스트리트 시범 사업(King Street Project)을 통한 운행 속도 향상
 -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 수도물 사용 앱(MyWater Toronto)을 통한 사용량 인지 향상 및 오픈 데이터를 이용한 신뢰성 향상
- ‘스마트 도시’ 추진에 있어 민관의 협력
 - 2017년 미래도시 시범 사업으로 구상된 ‘워터프론트 토론토’(Waterfront Toronto) 프로젝트 입찰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도시개발사업 회사인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가 낙찰
 - 약 1만 5천 평 규모(12에이커)의 북미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사이드 워크 토론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기관인 벡터 연구소(Vector Institute)를 2017년 3월에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에 설립
- ‘스마트 시티’ 개발에 따른 데이터 수집, 사생활 보호,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토론토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사용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공 협의를 제안하고, ‘도시 디지털 인프라 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디지털 권리를 위한 세계 도시 연합 선언에 동참
 - 2019년 6월, 시의회는 디지털 권리를 위한 전 세계 도시 연합에 서명함으로써 세계 여러 도시와 긴밀한 연계를 도모
 -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뉴욕, 베를린 등 세계 25개국에 참여한 이 선언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에서 인터넷상 인권 보호를 강화
 -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기술 장벽을 없애고,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을 위해 공동 노력
- 디지털 기술과 도시에 관한 공공 협의와 논의 진행
 -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사용 규제에 대한 시의 결정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도시계획’(Digital Infrastructure Plan)을 추진
 - ‘디지털 인프라 계획’에 있어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공공의 논의 추진
 - 디지털 기술과 도시 서비스 이용 시 디지털 효능에 대한 인식 제고 가능
- ‘디지털 인프라 도시계획’의 최신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이메일 등록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
 - 누구에게나 열린 정보 공개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 공개 간담회를 유튜브 생방송(Youtube livestream)으로 공개

기대효과

-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통해 주민 참여 기회 증진
 - 개인정보 활용, 공공 소유권, 형평성, 공공의 이익 보호, 투명성과 책임성과 같은 공공 이슈를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 제공
- 정부 활동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시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뿐 아니라 모든 도시 관련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도시 공동체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

<https://www.toronto.ca/city-government/accountability-operations-customer-service/long-term-vision-plans-and-strategies/smart-cityto/>

<https://www.toronto.ca/community-people/get-involved/public-consultations/#item/746>

<https://citiesfordigitalrights.org>

옛 우체국을 ‘테크 도시’ 중심지로 탈바꿈

미국 시카고市 / 도시계획·주택

미국 시카고市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여 중서부 지역 ‘테크 도시’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20년 이상 빈 건물로 남아있던 중앙우체국을 대상으로 2016년 재개발에 착수, 2019년 9월 새로 단장한 중앙홀을 우선 공개. 건물 임대를 통해 관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의 입주를 도모해 저이용 공유지 문제 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도모

배경

- 시카고市의 중앙우체국은 1932년 완공된 역사적인 건물
 - ‘건축의 도시’라 불리는 시카고는 역사적인 중앙우체국 건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국으로 한때 5,000명의 직원이 총 길이 10마일에 이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운영하며 연간 3,500만 개의 우편물을 처리
 - 1996년 중앙우체국이 첨단설비를 갖춘 새 건물로 옮겨가면서 20여 년간 공실 상태가 됨. 시카고의 대표적인 저이용 공유 빌딩이었으나, 건물 규모와 역사적인 의의로 인해 연간 200만 달러의 관리비를 지출하면서 계속해서 유지
- 시당국은 2016년 재개발에 착수
 - 시당국의 적극적인 ‘테크 도시(Tech City)’ 계획을 바탕으로 2016년 리노베이션에 돌입해 새로 단장한 중앙홀을 먼저 공개
 - 과거 우체국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트럭, 차량 운송 등 각종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적극 활용하여 ‘테크 기업’ 입주 추진

주요 내용

- 市는 저이용 공유지이자 대형 빌딩인 옛 중앙우체국의 외관과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함과 동시에 미래 도시산업의 중심이 되는 ‘테크 도시’ 계획에 맞춰 현대화 추진
 - 기존 우체국 내부 시설을 현대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중점을 둠
 - 외관 및 내부 인테리어 등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고, 시민들도 관람 및 이용 가능한 공공 빌딩으로 탈바꿈
 - ‘테크 도시’ 계획을 통해 미국 대표 기업 월그린스, 우버, 페라라 캔디, 홈 셰프,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개발계획청, 광고업체 어벨슨 테일러, 펍시코 등이 임차 계약

을 맺음

- 공유 차량 서비스로 유명한 우버 테크놀로지(Uber Technologies)는 향후 10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3년간 인력 2,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발표
- 민간기업 입주를 통해 지역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특허 논란이나 불만을 줄임
- 옛 중앙우체국 재개발을 통해 시 외곽에 있던 기업들이 중심으로 모여며,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역 특색 강화 효과를 창출
 - 시카고 중심지에 위치한 옛 중앙우체국 건물에 시 외곽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던 기업들이 입주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와 같이 지역 특색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 및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낙수 효과 기대
 - 또한 건물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건축 인부의 고용을 창출하고, 식품 가공업, 운송 물류업 등 지역 산업을 활성화
 -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로 통해 젊은 인력과 도시 내 인구 증가 효과 예상
 - 지역 특색 강화를 통해 과거 미국 교통의 중심지라 불렸던 시카고市の 명성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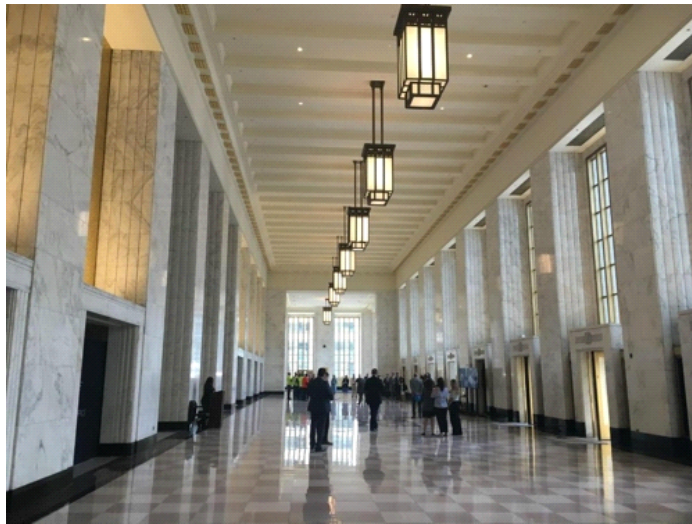


[그림 1] 시카고 옛 중앙우체국 전경

향후 계획

- 市는 '테크 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 7개 분야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
 - 옛 중앙우체국 개발을 중심으로 인력개발, 추진계획, 마케팅, 세제 혜택 등 시정부의 세부 지원내용을 공개해 신뢰도 제고 기대

- 옛 중앙우체국 관리비용을 기업 임차료로 충당함으로써 도시 재정구조가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2020년 중·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
- 저이용 대형 공유 빌딩인 옛 중앙우체국 재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토지 사용 가이드라인 및 선례 마련
- 옛 중앙우체국의 경우 명확한 도시 내 토지 사용 가이드라인 및 저이용 대규모 빌딩 활용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민간 개발업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재개발 계획을 좌지우지한 측면이 있음



[그림 2] 시카고 옛 중앙우체국 재개발 후 공개된 중앙홀

<https://www2.illinois.gov/>

<https://www.chicagotribune.com/columns/ryan-ori/ct-biz-old-post-office-area-growth-ryan-ori-20190926-pjmowvllqbhzvlttheizbmhnfre-story.html>

https://en.wikipedia.org/wiki/Old_Chicago_Main_Post_Office

<http://www.post433.com/>

<https://chicago.curbed.com/2019/10/21/20924921/old-post-office-photos-amenities-adaptive-reuse>

<https://www.nbcchicago.com/news/local/new-old-chicago-post-office-makeover/1970301/>

<https://pe.usps.com/>

강기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71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2월 3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